

# 의학도서관 간 외국학술잡지 공동이용의 발전방안\*

##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Sharing System of Foreign Medical Journal in Medical Libraries in Korea

송 준 용 (Jun-Yong Song)\*\*

### < 목 차 >

1. 서론
2. 국내의학도서관의 학술잡지공동이용 현황
3. 문제점 파악을 위한 이용자조사
4. 발전방안
5. 결론 및 제언

### 초 록

한국의 의학도서관들은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하여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를 주축으로 1969년부터 상호대차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의학정보에 대한 종합데이터베이스는 서지통정기관이 없는 실정이라서 자료 공동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분담수서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술잡지의 공동이용체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의학관련 정보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의학연구자와 현장 의학사에게 보낸 설문지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1년 간의 MEDLIS 운영결과 자료를 토대로 학술잡지 중복독현황, 상호대차 현황, 시스템운영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학술잡지 공동이용의 발전 방안을 설계하였다.

학술잡지 공동이용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에 의학전문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산하에 전국의 8개 지역센터를 두고,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1차 분담수서를 계획하고, 2차로 전국적인 분담수서를 계획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상호대차요구의 집중화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청되는 요구는 1차로 지역센터에서 처리하고, 해당지역에 소장되지 않은 자료는 2차로 전국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신청하는 체제로 설계하였다.

주제어 : 의학도서관, 분담수서, 상호대차, 학술잡지, 공동이용

### Abstract

Korean medical libraries have made interlibrary loan active under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since 1969, the sharing acquisition of journals has not been performed efficiently in the absence of a bibliographic control institute.

The medical library of Seoul National Medical University which is designated to a medical professional information center by Korea Education Academy Information developed MEDLIS linking the union catalog and interlibrary loan system and has been operating it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Medical Library Association.

Two types of questionnaires were sent to 350 medical researchers and 160 medical librarians to investigate the realities of domestic and foreign medical information institutes, develop sharing systems and find a solution for sharing systems. Also, some analyses for the recent state of duplicate subscriptions, interlibrary loan, demands for system operations on the basis of the statistics of MEDLIS users were made.

The result showed that medical researchers and medical librarians are affirmative for MEDLIS, users need a convenient interlibrary loan system and medical librarians agree to activate interlibrary loan. It also showed that sharing acquisition of journals seemed to be realizable for medical librarians, although there was no intention to improve the centralization of interlibrary loan among them.

From the findings, a plan for sharing acquisition of journals established by the sharing acquisition committee under Korea Medical Libraries Society and national 8 local centers to play a key role in it was made. Also, a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center for controlling Korean medical bibliographies was suggested. This system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make users to acquire materials more effectively and save the national budget.

Key Words : Medical Library, Foreign Journal, Sharing System, Inter Library Loan

\* 이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 사서(junyoung@snu.ac.kr)

· 접수일 : 2002. 2. 19 · 최종심사일 : 2002. 3. 11 · 최종심사일 : 2002. 3. 18

## 1. 서 론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 각국의 도서관정보는 인터넷상에서 탐색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도서관간 학술잡지의 공동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의학 학술잡지는 의학도서관 장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의학분야 연구자들의 문헌 이용 실태를 인용 분석방법에 의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학술잡지의 이용률이 88.39%이고, 단행본 9.23%, 기타자료 2.38%로 나타나 단연 학술잡지의 이용률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sup>.

미국 출판시장에서 30개 주제 분야중 잡지가격이 가장 비싼 것은 러시아어 잡지의 영문본 역판으로서 1종당 평균 \$1,774.85이며, 2위는 화학과 물리학분야로 \$1,407.47이고, 3위는 의학 분야의 \$726.61로서 의학분야 잡지가격은 타 주제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고가로 나타나 있다<sup>2)</sup>

의학도서관이 당면한 문제는 잡지가격의 상승과 환율인상에 예산증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서관의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용자는 서비스 개선의 증가와 좀더 편리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전자잡지가 증가하고 있어서 인쇄 잡지 구독 이외에 전자잡지를 구독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발생되고, 매년 학술잡지 수가 증가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외국의학잡지의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기구로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이하 “한의도협”이라 한다.)가 있다. 한의도협은 1968년 6월 18일 창립된 이래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2001년 현재 협의회에 가입된 기관은 대학도서관 52개, 병원도서관 87개, 연구소 도서관 12개, 제약회사 도서관 10개 등 모두 161개 기관이 된다<sup>3)</sup> 한의도협의 제 2회(1969년)총회에서 상호대차규약이 채택되면서부터 의학잡지 공동이용을 위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왔다.

현재는 FAX나 우편, Ariel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대차를 실시하여 자관에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학술잡지에 한하여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이 개발한 학술잡지 종합정보시스템인 MEDLIS(MEDical Library Information System)를 통하여 소장처를 확인하여 상호대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잡지중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종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중복구독이 많아서 좀더 경제적이고 발전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MEDLIS는 보건과학 정보서비스 기관인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과학도서관 등 한의도협 회원도서관들에 소장된 학술잡지의 종합목록을 웹 기반으로 구축한 것으로서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1) 윤구호,이영철, “의학문헌의 계량 서지학적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18집(1991), pp. 61-90.

2) Barbara L. Albee, Brenda Dingley, "U. S. Periodical Prices-2001", *American Libraries*, Vol. 32, No. 5(2001), pp. 78-82.

3)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http://211.217.220.80/>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환경에서 의학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서는 학술잡지의 공동이용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라 하겠다. 구체적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4월 현재 한의도협에 가입된 161개 기관이 구독하고 있는 학술잡지에 대한 MEDLIS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총 종수는 3,198종이고 이중에 외국잡지가 2,817종(88%)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기관이 구독하고 있는 외국잡지 종수를 복본에 상관없이 단순히 합하여 보면 19,511종으로, 이중에 16,694종(순 구독종수의 700%)이 복본으로 중복 구독되고 있다.<sup>4)</sup> 어떤 도서관이라도 이용자가 요구하는 잡지를 모두 수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담수서를 통하여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외국학술잡지 종수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의학도서관간에 학술잡지 상호대차를 위해서 MEDLIS가 2000년 8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인 통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아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의 교열, 소장사항의 수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참가기관이 자관의 소장사항을 정기적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데이터베이스의 부정확성 때문에 원문복사를 신청하면 신청자료가 없어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상호대차 운영상에 제도적인 제어장치가 없어서 특정도서관으로 신청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MEDLIS는 주로 도서관측 사서의 입장에서 관리상 편리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참여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이용자와 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이 아닌 다른 도서관이 원문제공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들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많은 이용자의 동시 접속으로 인한 처리속도의 지연, 참고질의 응답 등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좀더 편리한 첨단 전산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연구자가 학술잡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차 정보원인 기사색인을 탐색한 후 검색된 기사가 어느 잡지에 실려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학관련 학술잡지의 대표적인 기사색인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NLM)의 MEDLINE DB에는 한국잡지는 14종밖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문헌은 이용자가 탐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다만 MEDLIS에서 국내의학잡지 기사색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분인 13,000건에 불과하고, 충북대학교 의학정보센터에 176,000건이 축적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의학문헌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이트를 찾아 다녀야 하

4) MEDLIS, “학술잡지 중복 구독 현황”, <http://medunion.snu.ac.kr/admin/Super/title/TitleYear List.asp>

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미국 NLM과 같은 국립의학도서관이나 국립의학정보센터와 같은 전문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국내 의학도서관간의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한 활동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도협은 국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원활하게 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국가예산 지원에 의한 전국적인 의학도서관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학도서관의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하여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꾸준히 발전시켜 온 현행 한의도협의 상호대차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분담수서를 제도화하고, 상호대차를 처리하기 위한 MEDLIS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좀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함이 주목적이다.

## 1.2 연구방법

학술잡지 공동이용시스템과 관련되는 선행연구논문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주요한 의학잡지의 공동이용시스템을 조사하였다. 또한 의학연구자들의 학술잡지 이용행태와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표본대상 집단은 서울대와 상호대차를 하고 있는 161개 한의도협 회원도서관중 상호대차를 많이 하고 있는 113개 기관에 소속된 이용자 350명과, 현재 MEDLIS를 사용하고 있는 113개 회원기관의 의학사서 160명을 표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학술잡지의 공동이용에 대한 의학사서의 인식과 요구 등을 조사·분석하였고, 의학도서관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MEDLIS시스템의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의사전달 결과인 전자우편, 게시판, 질문 및 답변사항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의도협에 가입된 도서관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또한 국내 의학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외국 의학관계 학술잡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1.3.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Green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것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상호대차를 하면 도서관의 유용성은 크게 향상할 것이라고 하였다.<sup>5)</sup> Clement는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대차를 위해서는 학술잡지를 포괄적으로 소장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5) Samuel Swett Green, "Personal Relations between Librarians and Readers ; Originally Published in October 1, 1876", *Library Journal*, 118(June 1998), pp 48-49.

하며, 학술잡지의 소장기관을 파악할 수 있고, 상호대차를 요청하는 시스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공적인 조직을 통하여 조정과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sup>6)</sup> Burk(1994)는 가장 효율적인 상호대차 시스템을 찾기 위해 미국 각주의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네트워크 구성과 상호대차 업무처리의 속도와 비용의 상관성을 조사·분석하였는데 ① 네트워크는 분산화와 소형화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② CD-ROM DB는 온라인 요금을 지불할 수 없는 도서관이 구입하는 것이 적합하다. ③ 프로토콜은 상호대차 신청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④ 많은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도구 없이 서지검색을 하고 있었다. ⑤ 전자적인 기관간의 연결은 작업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⑥ 이용자가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하여 잘 알면 더 많은 신청이 요구된다.<sup>7)</sup>는 것을 발견하였다. Fedunok(1996)는 뉴욕주립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 SUNY) 센터 기관간에 간행물 공동이용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 ① 간행물 목록의 작성 ② 이용자 지향 문헌전달 봉사 ③ 전자적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공유화 목록 링크 ④ 잡지이용연구와 장서평가 프로젝트지원, 장서구성의 변화 등이 고려되었다.<sup>8)</sup> Jackson(1997)은 미국의 연구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서 비용, 처리율, 입수 소요시간, 이용자 만족도 등의 4가지 항목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다.<sup>9)</sup> Butler(1998)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SUNY(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niversity)의 대학센터도서관들이 도서관간 협력과 정보원공유, 협력 문헌복사의 경제적인 측면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金澤(1991)은 일본의 의학도서관의 직면한 문제, 즉 ① 연구자의 요구에 대한 의학도서관의 수용능력 ② 학술잡지 구입 등의 경제적인 문제 ③ 각종 의학도서관 사서의 감소에 따른 대응책 ④ 보유한 의학정보의 범위 ⑤ 전국 의학도서관을 포용하는 상호이용 문제 ⑥ 역사적인 잡지, 서적, 자료 등의 보존을 위한 사유로 국립의학도서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0)</sup>

양승욱(1992)은 의학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구축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의학정보의 상호대차, 종합목록, 정보검색기능, 공동수서, 공동편목, 교육, 공동보존을 위하여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11)</sup> 홍기선(1992)은 우리나라에서 국내외적으로 상호대차를 하고 있는 학술잡지의 신청회수를 대상으로 분담수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청이 많은 잡지는 신청기관에

6) H. E. Cleme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Model Library for Interlending, & Document Supply",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in London*, 1988, pp. 5-15.  
 7) Joyce Annette Burk, "State Multitype Library Network Interlibrary Loan Systems: a Measurement of Their Effectiveness", Ph. D. Dissertation, San Jose State University, 1994.  
 8) Suzanne Fedunok, "Proposals for Interinstitutional Serials Cooperation at the SUNY Centers", *The Serials Librarian*, Vol. 29, No. 3-4(1996), pp. 67-77.  
 9) Mary E. Jackson,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Interlibrary Loan and Document Delivery Services", *ARL: A Bimonthly Newsletter of Research Library Issues and Actions*, No. 195(1997), pp. 1-4.  
 10) 金澤一郎, "國立醫學圖書館の必要性", 《醫學圖書館》第16卷 第1号(1999), pp. 381-384.  
 11) 양승욱, "의학정보네트워크의 이론과 현황 1", 《도서관》통권821 호(1992), pp. 41-61.

서 구독하는 것을 권장하고, 신청이 5회 이하인 잡지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기관간에 분담수서를 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sup>12)</sup> 이영철(1993)은 의학도서관 전산화를 통한 자원공유를 연구하였는데 종합목록의 전산화를 통하여 상호대차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분담수서를 지역중심체제로 하고 의학정보의 편중된 흐름을 의과대학중심과 병원중심체제로 나누고, 전산화 표준 포맷 구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sup>13)</sup> 윤정선(1996) 등은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한 의학도서관간의 협력체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상호대차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를 7가지로 연구하였는데 첫째, 특정 도서관에 요구집중(47%), 둘째, 중앙조정기능이 없다.(27%), 셋째, 종합목록 부정확(9%), 넷째, 회신기간 지연(6%), 다섯째, 업무표준화 미비(3%), 여섯째, 요청절차 복잡(3%), 기타(5%)로서 특정도서관의 집중화 현상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sup>14)</sup> 윤영대(1996)는 도서관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의학도서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잡지를 연구하였으며, Brandon & Hill 목록과 JCR (Journal Citation Reports)을 비교하여 핵심잡지목록을 개발하였다.<sup>15)</sup> 김혜양(1998)은 환율폭등 등의 도서관의 예산적 어려움에 따라 학술잡지 구독중단을 위하여 학술잡지의 이용빈도, 인용분석, 이용자평가, 핵심잡지 목록과의 비교, 타도서관의 소장사항 파악, 이차자료의 수록유무 조사로 구독잡지 중단방안을 제시한 뒤, 대체수단으로 분담수서와 상호대차의 활성화, 전자매체의 사용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sup>16)</sup>

## 2. 국내의학도서관의 학술잡지공동이용 현황

### 2.1 외국 학술잡지 구독현황

학술잡지의 분담수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의도협 회원기관이 구독하고 있는 학술잡지의 종수와 중복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1년 4월 현재 한의도협의 161개 회원기관이 구독하고 있는 학술잡지 총 종수는 3,198종이었고, 이중에 외국잡지가 2,817종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기관이 구독하는 총계는 19,511 종으로 700%를 중복하여

12) 홍기선, “의학잡지 상호대차업무개선을 위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3) 이영철, “의학도서관 전산화를 통한 자원공유”, 《한국의학도서관》 제20권, 제2호(1993), pp. 97-102.

14) 윤정선, 윤봉자, 정동열, “학술잡지 공유를 위한 의학도서관 협력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도서관》 제23권, 제1호(1996), pp. 11-38.

15) 윤영대, “의학 도서관의 핵심 잡지 목록 개발에 관한 연구”, 《상명대 사회과학연구》 제9집(1996), pp. 263-280.

16) 김혜양, “구독잡지 중단과 협동수서”, 《한국의학도서관》 제25권, 제1호(1998), pp. 31-43.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잡지는 The american journal of surgical pathology로 65개 기관이 구독하고 있었다. 전체 잡지중 50% 이상이 17개 기관이 구독하고 있고, 1개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잡지도 873종이나 되었다. 560종이 10개 기관 이상이 구독하고 있었다.

중복잡지 구독으로 전체 도서관이 외국학술잡지를 구독하는데 소요되는 외화가 얼마나 되는지, 분담수서를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EBSCO에서 출판되는 1999-2000 Librarian' handbook의 잡지가격표를 기준으로 각 잡지별로 ISSN을 대조하여 가격조사를 하였다. 총 2,817종 중 가격조사를 할 수 있는 잡지는 2,283종이었고, 534종은 가격조사를 못하였다. 가격정보가 있는 2,283종을 한 부씩만 구입한다고 해도 \$1,683,578.47(\*환율 1,320원=2,222,323,580원)로서 약 22억원이 소요된다. 우리나라 전체 의학도서관이 외국학술잡지를 구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1,808,469.76 연간 약 155억원의 외화가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복잡지는 국내에서 한 종당 8개 기관의 중복을 허용하여 구독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7,559,245.98로 약 99억원에 해당하는 만큼 더 많은 잡지를 구독할 수 있다. 물론 해당기관의 핵심잡지를 포함하였을 경우이다. 이 금액은 국내에 없는 잡지를 구독한다면 중복구독비용 \$7,559,245.98을 미국의 의학분야 잡지 평균가격(\$726.61)으로 나눈다면 10,403종을 구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은 MEDLINE에 등재되어 있는 잡지 4,300종의 250%를 구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구독하고 있는 잡지가 어느 정도 주요한 잡지인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0년도의 List of Journals indexed in index Medicus로 MEDLINE의 등재여부를 조사하였다. 외국잡지 2,817종중 1,829종이 등재되어 있는 잡지였으며, 988종은 등재되지 않는 잡지였다. Index Medicus에 수록되는 잡지는 객관적으로 세계에서 가치가 높은 잡지라 볼 수 있다. 가격이 조사된 2,283종중 연간구독료가 \$5,000이 넘는 비싼 잡지를 어느 정도 많은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5,000이 넘는 잡지가 23종에 달하였으며 가장 값비싼 잡지는 BRAIN RESEARCH(8개 분야 All Section)로 가격이 \$18,686.62이었다. 상당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8개 기관이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비가 \$5,000이 넘는 23종 중 4종만 1개 기관에서 구독하고 나머지 19종은 모두 중복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지가격이 \$1,000이상이 되는 잡지는 전체 2,283종중 426종으로 \$995,147.79로 13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볼 때 분담수서의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 2.2 학술잡지종합목록의 유지관리

국내 의학도서관간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한 학술잡지 종합목록의 발간사업은 1969년 서

울시내 5개 의과대학분(가톨릭의대, 서울의대, 이화의대, 우석의대(현 고려의대), 연세의대)을 수록하여 초판으로 발행하게 되었는데, 양서잡지 916종을 1967년 말까지 권, 호, 년도별로 수록하고 있다.<sup>17)</sup> 제 2판은 1970년 5월에 9개 도서관이 참여하여 322종을 5면으로 실었는데, 이는 1판의 추가분으로 지방회원 소장잡지를 대상으로 수록하고 있다.<sup>18)</sup> 이후 현재의 MEDLIS 체제까지의 발간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의학관계 잡지종합목록의 발행내역

판수	발행년월	수록기간	참여기관	수록종수	발간형태
초 판	1967.12	~1967	5	916	책자목록
제 2판	1970. 5	~1969	9	322	"
제 3판	1971.12	~1970	22	1,251	"
보유판	1973. 2	~1971	19		"
보유판	1974. 2	~1972	21	750	"
제 4판	1976. 3	~1974	32	1,541	"
제 5판	1979. 4	~1978	46	2,067	"
제 6판	1982. 4	~1981	61	2,398	"
부 록	1984.12	1982~1983			"
제 7판	1986.10	~1985	72	2,884	"
부 록	1989. 3	1986~1988	71		"
제 8판	1991. 3	~1990	87	4,713	"
제 9판	1995. 9	~1994	140	4,733	책자+CD
제10판	1996. 12	~1997	150	5,906	책자+CD
MEDLIS	2000. 8	~현재	161	6,841	인터넷

제 9판(1995년)부터 제 10판까지는 책자와 CD-ROM을 동시 발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이 종합목록과 상호대차시스템을 연계하여 개발한 MEDLIS시스템을 2000년 8월 1일 가동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CD-ROM 및 인쇄물은 발행하지 않고 있다.

회원도서관은 MEDLIS에 인터넷으로 자관의 목록을 수시로 추기하고,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한 정보환경으로 바뀌면서 학술잡지 공동이용이 한층 자동화를 이루게 되었다.

의학관계 학술잡지의 종합목록시스템은 한국내의 의학정보서비스 기관인 의학, 치의학, 간호학, 보건학, 약학 등 보건과학도서관에 소장된 학술잡지의 소장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어디서나 어느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지를 검색하여 쉽게 알 수

17)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의학관계잡지종합목록』, 1967년판, 1969.

18) 정학수, 김혜양, “의학관계잡지 종합목록의 발간사 및 제작방향, 제10권 제-2호(1992), pp. 49-52.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그 목적은 의학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시스템을 통하여 상호대차 신청대상 도서관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수록대상은 전체 회원기관에 소장된 학술잡지로서 잡지 총 종수는 6,841종이며, KORMARC로 입력된 국내잡지는 863종이고 USMARC로 입력된 외국잡지는 5,978 종이다. 잡지에 대한 소장기관을 권·호 별로 알 수 있다. 전체 6,841종 중에는 구독이 중단된 잡지, 개명되어 서지가 별도로 등록된 잡지, 사무착오로 이중 등록된 잡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학술잡지의 서지DB의 운영체제는 신규서지는 국내에 없는 새로운 잡지를 구독할 때만 올리게 되는데 참가기관이 간략하게 서지를 올리면,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에서 외국의 참조과일을 활용하여 완전한 서지로 수정한다. 로컬에서는 자관에 소장된 소장정보는 수시로 체크인을 해야 되는데 체크인이 되어 있어야만 상호대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인은 중요한 작업이다. 회원도서관이 체크인을 잘못된 것은 해당도서관이 직접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체크인이 되어있는 권호중 타관이 같이 체크인을 하였을 경우는 센터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리될 수 있다. 신규서지 구축방식에 대하여는 수시로 실무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MEDLIS 가 운영되기까지는 종합목록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의학도서관에서 회원도서관이 보내 온 체크카드를 수합하여 종합목록을 만들어 많은 노력과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었다. 현재의 MEDLIS에 소장사항 추가 방법은 간단하며, 쉽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관의 소장사항을 추가하는 시기에 대하여 강제조항이 없고, 자발적인 협조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참가 도서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상호대차를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

MEDLIS 시스템운영에 있어서 참여기관이 공통으로 해야 할 의무사항은 각 기관에 소장된 학술잡지를 목록DB에 등록하는 분담목록과 소장사항의 추가, 신규서지의 입력과 자관에 신청된 문헌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관에 소장된 잡지의 소장 추가 문제는 한의도협에서 지속적인 독촉과 게시판의 공지로 독려하지만 참여기관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은 참여기관에서 입력한 서지를 수정하거나 신규로 입력하는 작업도 병행하기 때문에 서지등록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 외에 이화여자대학교 의학도서관에서 신규서지를 가장 많이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목록의 단점이 다른 참여자가 먼저 신규서지를 올려놓으면 그 서지를 다운로드 하려는 경향과 제일먼저 신규등록 하였을 때 오류가 있을 경우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입력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 2.3 상호대차 현황

한국 의학도서관간의 상호대차는 다른 분야의 전문도서관 그룹에 비하여 상당히 활발하고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긴밀한 협조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래와 같은 연구자료에 의하면 이용자측면에서와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의학도서관간 상호대차의 1998년, 1999년 실적은 참여기관 161개 기관중 8%에 해당하는 12개 기관(울산의대, 연세의대,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대, 서울의대, 아주의대, 부산의대, 경북의대, 고려의대, 이화의대, 고신의대, 계명의대)이 전체 상호대차 건수의 50.9%를 차지하여 심한 집중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147개 기관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상호대차실적 건수가 10,000건 이상이 되는 기관을 보면 <표 2>와 같은데 서울의 몇몇 주요대학들이 가장 많은 상호대차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상호대차 제공순위 현황(10,000건 이상)<sup>19)</sup>

순위	기관명	의뢰합계	전체 의뢰비율	제공합계	전체 제공비율
1	연세의대	2,700	0.63%	56,630	14.05%
2	가톨릭의대	10,129	2.38%	43,034	10.68%
3	울산의대	23,500	5.52%	41,398	10.27%
4	삼성서울	25,284	5.93%	28,906	7.17%
5	서울의대	12,200	2.86%	23,696	5.88%
6	아주의대	20,900	4.91%	13,897	3.45%
7	계명의대	4,060	0.95%	13,307	3.30%
8	고려의대	6,681	1.57%	12,902	3.20%
9	부산의대	12,410	2.91%	12,231	3.04%
10	고신의대	6,800	1.60%	11,547	2.87%
11	한양의대	4,312	1.01%	10,918	2.71%
12	영동세브란스	1,900	0.45%	10,057	2.50%

이 중에서 문헌을 가장 많이 제공한 기관은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으로 전체의 1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문헌을 요청한 기관은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센터로 5.9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연세대학교는 최신자료나 오래된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19) 통계작성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사무국에서 제공한 상호대차 쿠폰거래현황을 통계표로 작성한 것임.

반면에 삼성서울병원은 1,162종이라는 많은 종수를 구독하고 있지만, 1995년에 개관하였으므로 기간호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 동안 인쇄잡지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던 상호대차도 전자잡지의 등장으로 많은 기관에서 전자잡지로 대체하는 비율이 많아지고 있으며, 상호대차는 저작권법의 제약 등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대차의 문헌 전달 소요시간은 국내간에 우편은 8.7일, 속달우편은 2.9일, FAX는 0.8일로 나타나<sup>20)</sup>, 팩스에 의한 전달시간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연구에 지장을 줄 것은 당연하며, 이에 대한 불만이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 있다. 원문을 이미지파일로 전송하는 미국연구전산망에서 상호대차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된 Ariel System을 국내 모든 의학도서관들이 활용한다면 원문제공시간이 더욱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2.4 MEDLIS의 운영현황

MEDLIS는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에서 발행하여 오던 의학관계 학술잡지 종합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에 상호대차를 접목시켜 1999년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이 웹 환경에서 한의도협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소장학술잡지목록의 구축, 소장사항 입력, 검색, 출력이 가능하며, 종합목록을 이용하여 상호대차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특징은 일반이용자가 필요한 의학잡지의 소장처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고, 회원도서관은 웹상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상호대차의 서비스가 편리해지고, 요금 정산이 쉬워지며, 소규모 도서관은 자관의 호스트컴퓨터 없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종합목록, 상호대차시스템, 국내의학잡지 기사색인, 시스템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개발요구서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이 작성하였고, 소장 DB 구축은 각 의학도서관 협의회 회원도서관이 하며, 신규서지 DB구축은 각 도서관이 한다. 서지 DB교열은 서울대 의학도서관이 하며, 상호대차 운영은 협회회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회원도서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한의도협 회원이어야 가능하다. 회원도서관은 각 기관에 소장된 학술잡지의 소장사항을 추기해야 하며 상호대차 요청을 처리해야 하며,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사전에 등록요청서를 보내고 등록된 후에 사용한다. 일반이용자는 검색시스템의 접속만 가능하고 상호대차로 연결되지는 못한다.

MEDLIS를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된 사용자의 임무별 통계를 보면 <표 3>과 같이 1,187명

20) 윤정신, 윤봉자, 정동열, “학술잡지 공유를 위한 의학도서관 협력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학도서관》 제23권, 제1호(1996), pp. 11-38.

이다. 한사람이 여러 직무를 겸임할 수도 있다. 총 161개 기관이 기관관리자와 상호대차 담당자를 등록하고 있다.

<표 3> MEDLIS 등록자 임무별 통계

ID 권한별	등록자수
기관관리자	161
홀딩·서지관리자	154
상호대차관리자	161
기사색인관리자	124
개인회원	587
합 계	1,187

일반이용자가 접근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종합목록의 검색, 기사색인의 검색이 있으며, 상호대차신청, 상호대차 규정, 요금 체계안내가 있고, ID 조회, 처리상황 조회와 게시판과 공지사항이 있다. 요금정산은 한의도협이 중앙정산제도로 하고 있으며 상호대차는 선불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예치금을 협의회에 납부한 기관만 상호대차가 가능하다. 정산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의도협에서 실시하고 있다.

### 3. 문제점 파악을 위한 이용자조사

공공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첫째, 의학도서관간의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MEDLIS 시스템의 제반 문제와 현장의 의학사서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동이용의 발전방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학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학술잡지 이용행태와 정보이용방안에 대한 의학연구자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MEDLIS를 실제 운영하면서 현장의 운영자와 일반이용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하여 게시판, 전자우편, 질문 및 답변사항을 분석하였다.

### 3.1 의학사서에 대한 설문분석

본 설문조사는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 161개 회원 기관중 서울대와 상호대차를 많이 하는 113개 기관에 상호대차관리자 및 종합목록관리자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총 160명에게 배포하여 115명(회수율 72%)으로부터 회수되었다. 결과분석은 SPSS WIN 프로그램 10.0 버전을 이용하였고, 설문지 문항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3.2 이용자에 대한 설문분석

의학분야 연구자의 문헌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현재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한의도협 회원기관 소속 113개 기관 350명의 이용자에게 설문 조사를 하였다. 350부를 배포하여 227부(회수율 65%)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반송용 우편으로 회수 받았다.

### 3.3 MEDLIS에 대한 이용자 요구조사

#### 3.3.1 시스템 운영자 요구사항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공동 운영하는 MEDLIS는 2000년 4월 1일 회원기관간에 시험 운영을 시작하였고, 2000년 8월 1일부터 상호대차를 공식적으로 가동하였다. 2000년 4월 1일부터 2001년 4월 1일까지 1년 동안 MEDLIS를 운영하면서 각 기관의 관리자들이 시스템 관리자나 담당자들에게 E-Mail, 게시판, 질문 및 답변으로 회수한 321건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의 <표 4>과 같다.

<표 4> MEDLIS사용자의 요구 또는 문의한 내용

문의 내용		전자우편	게시판	질문 및 답변	합 계	비율
참고질의	등록 방법 및 요구	41			41	14%
	ID분실 확인문의	4			4	1%
	등록사항 변경에 대한 홍보	1	12		13	4%
	사용법 문의(기능, 처리방법, 검색)	12	5	20	37	12%
	자관 홍보		2		2	1%

문의 내용		전자우편	게시판	질문 및 답변	합 계	비율
상호대차	상호대차 신청 끝페이지 문의	5			5	2%
	시스템 처리결과 확인요청	4	1	5	10	3%
	자관 휴관 및 서비스 중단안내		31		31	10%
	회원현황 및 예치금 관련문의	8			8	2%
	시스템 명칭표기 수정	4			4	1%
	주소변경 이나 E-Mail변경 수정	17			17	5%
분담목록	사용자 오류처리 수정요구	5	2	5	12	4%
	서지 신규입력 요구	3			3	1%
	간행빈도 문의	3			3	1%
	서지 등록사항 문의			17	17	5%
시스템	서지사항 수정요구	20	30		50	16%
	운영자에 대한 격려, 항의	9	1		10	3%
	기능변경 및 개선요구	5	19	2	26	8%
	시스템 에러, 운영에 관한 문의	9	6	13	28	9%
합 계		150	109	62	321	100%

전자우편으로 문의한 건수는 150건으로 초기에는 등록방법에 관한 문의를 많이 하였고, 중기에는 처리 잘못으로 인한 것과 기능 수정요구가 많았으며, 기능이 어느 정도 익숙한 사용자는 기능의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다.

게시판은 총 109건이며 질문 및 답변사항은 총 62건으로 학술잡지의 서지사항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에 관련되는 사항이 가장 많았다. 2000년 12월까지의 게시판과 질문 및 답변사항을 분리하여 운영하다가 올려진 내용들이 비슷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다.

기타, 전화문의는 1일 3-4건 정도로 많았으나 기록을 남겨 놓은 것이 없어서 통계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 3.3.2 일반이용자 요구사항

2000년 4월부터 2001년 4월까지 1년 동안 모든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내의 게시판과 질문 및 답변의 요구사항은 <표 5>과 같이 76건으로 이것을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접속한 일반이용자 요구건수

문의 내용	게시판	질문 및 답변	합계	백분율
등록 방법 문의		1	1	1%
자료 탐색 서비스의 요구	15	19	34	45%
검색방법 문의	5	3	8	11%
자료 요구	1	1	2	3%
건강 정보 문의(치료방법)	8	7	15	20%
시스템 에러 문의	6	2	8	11%
관리자 격려	2		2	3%
관리자 항의	2		2	3%
휴관안내	1		1	1%
시스템 개선요구 및 문의	3		3	4%
합 계	43	33	76	100%

요구사항의 대부분은 어떠한 자료탐색 서비스요구, 혹은 자료 탐색방법에 대한 문의였다. 따라서 참고봉사에 관련된 요구사항이 많아서 별도로 이에 응답해 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원의 환자 진료상담에 해당하는 요구사항도 많아서 이 논문 주제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의학상담 프로그램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어떤 자료의 송부 요청도 있어서 허용되는 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한계를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 3.4 도출된 문제점

#### 3.4.1 학술잡지 분담수서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의학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학술잡지 종수는 한국의 대규모 의학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연세대나 서울대의학도서관 모두 외국의 의학도서관과 비교하여 볼 때 적게 구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학분야의 학술잡지는 거의 외국의 잡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독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외화가 지출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담수서를 한다면 연간 117억을 절약할 수 있다. MEDLINE에 등재되는 4,300종 중 1,829종밖에 국내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은 실정에서 분담수서로 중복구입을 최소화하여 국내 보유종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학술잡지 분담수서에 관하여서는 전체

응답자 115명중 84명이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었다. 분담수서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로서 기관간의 이해관계, 이용자의 불편, 행정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수반된다면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서들의 실행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분담수서를 추진할 기구의 성립과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4.2 상호대차의 문제점

현행의 상호대차제도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①개인회원제도의 부재로 한의도협 회원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개인병원의 의사들이나 개업의 및 일반이용자는 원문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 ②상호대차 신청에 있어서 특정도서관에 편중된다는 것, ③상호대차의 처리기간이 길다는 것, ④상호대차의 요금 중 FAX의 경우 비싼 점등이 지적되었다.

첫째, MEDLIS 에 개인 회원제도를 두어 일반이용자를 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에 대하여서는 120명중 허용이 23명, 요금정산체제가 완비되면 허용이 22명, 한의도협의 정책에 일임이 30명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배제하지는 의견도 43명으로 많은 사서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지만, 관리적인 측면의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서비스방식을 개선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기반으로 하되 반대의견을 포용하여 일반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상호대차를 활성화하지는 데는 96%가 찬성하고 있으며, 일반이용자에게 원문제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요인 중의 하나는 요금정산이 불확실하다는 이유가 61%이며, 업무량의 증가요인으로 기피하는 쪽이 32%나 되어 수용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반감계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정산의 문제는 인터넷 쇼핑에서 주로 활용하는 카드결제시스템의 도입, 선불 무통장 계좌입금제, 예치금제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MEDLIS 에 도입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한편 기피하는 요인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정도서관에 상호대차 신청이 집중되는 문제는 자료가 많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서 라는 이유로 집중되는 경향에 대하여 수정안으로 권역별로 1차 신청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55명으로 으뜸이고, 권역별로 나누자는 의견도 48명으로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정도서관에 집중화되는 경향에 대하여 상호대차서비스 요금이 제공해 주는 도서관에 상당한 수입원이 된다면 제공해 주는 기관도 집중화에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요금체계는 담당자의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으로 회생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집중화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상호대차의 처리기간의 지연에 대하여 설문결과에도 같이 나



타났다. 이용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라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넷째, 상호대차의 요금에 대하여서는 많은 이용자가 FAX처리 요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적정요금 산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요금체계는 외국이나 타도서관의 요금체계에 비하여 싼 편이며, 담당자의 인건비와 소모품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회생을 나누는 방안은 상호대차의 분산화 처리이다.

### 3.4.3 MEDLIS시스템의 문제점

의학연구자중 MEDLIS를 알고 있는 이용자나 의학사서 모두 이용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의학사서의 회답 처리속도의 지연(66%)과 기능상의 부족, 기능상의 보완, 인지도의 부족(의학연구자 50%), MEDLIS 시스템 운영에 관한 참고질의 응답서비스의 부족, 종합목록 서지관리의 체계화, 일반 이용자를 위한 참고질의 응답 서비스 창구 개설, 자료탐색요구에 대한 질의응답서비스 등은 보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참여기관이 해야 하는 종합목록시스템에서의 서지사항 등록, 소장사항의 추기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종합목록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서지사항이나 소장사항의 부정확으로 인하여 상호대차의 실패율이 높아진다. 상호대차 실패의 요인은 서지사항불명(40%), 제본중(24%), 종합목록기재착오(14%), 대출중(10%), 소재불명(2%)과 같은 연구결과에도 나타났듯이<sup>21)</sup> 종합목록서지사항이나 소장사항은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서지를 통할할 국가 서지통정기구 설립에 대하여서 의학사서 86%가 찬성을 하고 있고, 의학연구자들 또한 227명중 191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의학전문정보센터의 설립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 4. 발전방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악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방법에서 밝힌바 와 같이 학술잡지 공유활동에 관계되는 요소별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21) 한상철, 이인순, “국내의학도서관 상호대차 현황 및 업무분석”, 《한국의학도서관》 제18권, 제1-2호(1991), pp. 49-52.

## 4.1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

### 4.1.1 네트워크의 구성

도서관간의 협력체계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나 논리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만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 또 상호대차, 분담수서, 업무협조사항 전달 등 참여도서관간의 의사전달을 위하여 각 기관이 각자 협력관계에 있는 전체기관을 상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업무의 성과에 능률이 저하된다. 따라서 계층형 네트워크에서 정점을 구성하는 상위 중앙도서관과 규모별, 지역별로 하위 연결고리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의학정보센터는 지역센터간의 역할분담을 조정하고, 협력조직을 조정관리하며, 전산자원을 포함한 자문역할을 하고, 각종 서지기술을 표준화하고, 국내 의학문헌에 대한 색인을 주도하며, 학술잡지종합목록과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NLM 주도하에 모든 의학분야도서관 상호대차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학도서관협회는 분산형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NACSIS)는 대학도서관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으로 계층형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인 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BLDSC가 주도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유형중 전국적인 규모인 의학도서관네트워크는 계층형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양승욱도 계층제 구조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을 중앙센터로 하고, 전국을 6개의 지역센터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22)</sup> 이 연구는 서울에는 2개의 지역센터만 지정되어 있어 의학도서관이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선행연구논문만 기초로 하여 지역센터를 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윤봉자는 계층제 조직으로 중앙센터를 서울대 의학도서관으로 정하고, 지역센터는 ①구독 중인 외국잡지 종수, ②문헌제공 건수, ③문헌제공 도서관수 ④도서관 전산화 상태의 4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sup>23)</sup> 이 연구는 지역센터의 선정기준에는 상당한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우선 중앙센터와 서울지역센터 D지역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센터의 역할에 비하면 과중한 임무가 따르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역센터의 관할 기관 배정에서는 지역별이 아닌 서울·경인지역에서 4개 지역센터에 골고루 분배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새로 회원이 가입하면 자원이 어느 지역센터에 속하는지 구분하기 어렵고, 매번 관할센터에 배정해야 한다.

또한, 연구당시와 현재와는 기초자료(상호대차건수, 구독잡지종수)가 <표 6>와 같이 다르

22) 양승욱, 한국의 의학정보네트워크 모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23) 윤봉자, 한국 의학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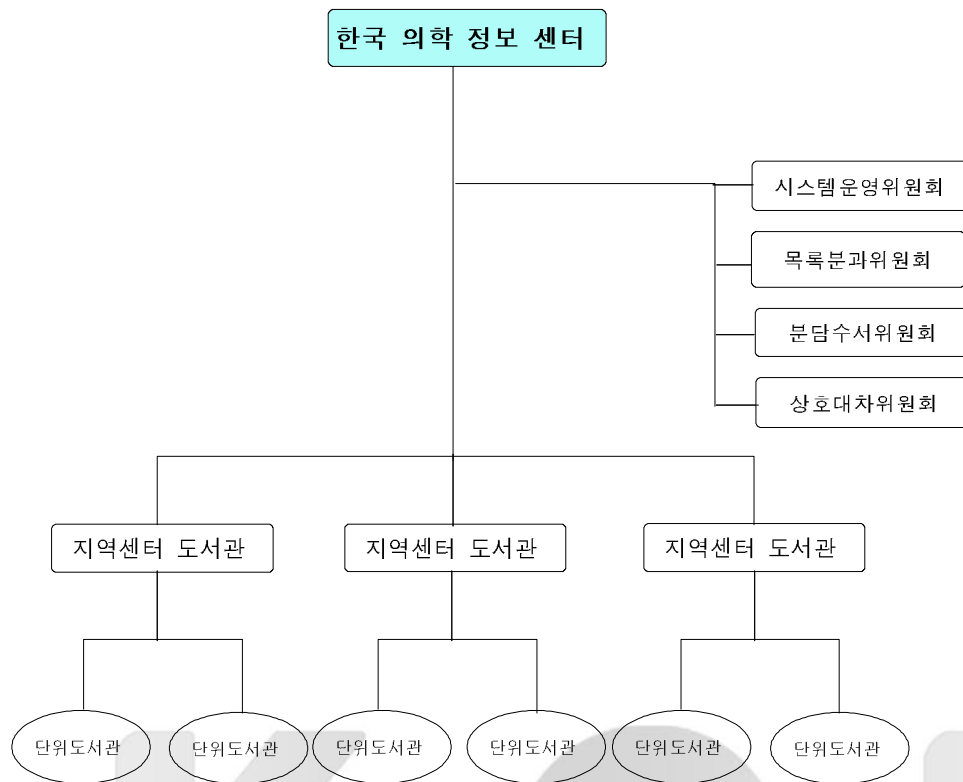
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센터와 관할기관을 재조정 하고자 한다.

<표 6> 주요 의학도서관의 최근 2년간 문헌제공 건수별 순위 및 구입잡지종수

순위	기관명	문헌제공	구입잡지	순위	기관명	문헌제공	구입잡지
1	연세의대	56,630	1,353	16	연세원주의대	9,310	499
2	가톨릭의대	43,034	1,103	17	경북의대	7,860	579
3	울산의대	41,398	1,023	18	경희의대	7,804	553
4	삼성서울	28,906	1,015	19	영남의대	7,778	420
5	서울의대	23,696	806	20	동아의대	6,999	339
6	아주의대	13,897	572	21	인제의대	6,477	385
7	계명의대	13,307	698	22	전남의대	5,187	408
8	고려의대	12,902	563	23	원광의대	4,384	229
9	부산의대	12,231	656	24	전북의대	3,662	434
10	고신의대	11,547	350	25	충남의대	3,622	200
11	한양의대	10,918	517	26	한림대학교	3,400	71
12	영동세브란스	10,057	249	27	경상의대	3,323	266
13	조선의대	9,741	255	28	인제대서울백	3,133	160
14	이화의대	9,711	419	29	서울치대	3,081	209
15	강동성심	9,570	184	42	충북의대	774	204

구성체계는 전국 의학도서관센터를 중심으로 <그림 1>과 같이 계층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미국 NLM도 이러한 계층제 조직으로 상호대차의 분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이러한 조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계층제 조직은 지휘통솔이 쉽고, 의사전달 통로가 확실하며, 권한과 책임의 분배가 가능하며, 목표설정과 업무의 배분이 쉽고, 조직내부에 있어서 분쟁과 조정의 해결이 쉽다.<sup>24)</sup> 따라서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층제 조직을 구성한다.

24) 박연호, 오세덕, 『현대조직관리론』. 서울 : 법문사, 1995. p. 249.



<그림 1> 계층제 네트워크 구조도

#### 4.1.2 한국의학정보센터

중앙센터는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내에 한국메들라스센터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가칭 한국의학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선행 연구한 양승옥, 윤정선, 윤봉자의 연구내용도 모두 같은 결과였다.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구 첨단정보센터)으로부터 1999년 의학 주제 전문정보센터로 지정을 받은 기능을 계승하고, 그 안에 Korea Medlars Center를 포함하는 전국도서관 네트워크의 정점으로 중앙센터의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센터로 지정되면서 7억 6천 1백만원의 학술잡지 구입비를 지원 받고(첨단 : 22222- 11(1999. 12. 22), 이에 상응하는 대응투자비로 센터의 시스템관리, 시스템 도입,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 의학전문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한바 있다. 이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

중앙센터는 단위기관의 3차 기관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지역센터에서는 제외한다.

운영은 의학전문정보센터나 Korea Medlars Center는 전국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기관인 만

큼 그 운영예산은 서울대학교 예산이 아닌 국가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서 전국 회원간의 의학정보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나 개업의 등 회원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용자도 정보이용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한의도협 재정으로는 전국적인 봉사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킬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고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전국의 의학서지통정기관으로 전국의학도서관의 발전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의학정보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할 때가 왔다. 또한 지역의학도서관들도 담당 지역 내에 센터도서관으로 봉사를 하려면 반대급부가 있어야 역할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학도서관지원법에 의한 지원예산을 NLM에서 관장하며, 이 기금으로 지역 의학도서관(RML)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역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듯이 의학정보센터의 운영비와 지역센터도서관의 지원금이 국가에서 부담되도록 되어야 한다.

중앙센터는 센터에 필요한 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종합목록, 상호대차, 분담수서,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할 시스템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회원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각 회원의 업무지원, 요금의 중앙정산지원, 공동이용을 지원 프로그램과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국내 의학잡지 기사색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기관회원의 관리, 기타 참고봉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분담수서 위원회를 두어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센터와 중앙센터장과 조정의 객관화를 위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지역센터에서의 1차 분담수서가 어려운 것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조정한다.

회원은 기관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하고, 기관회원은 자료를 소장하여 서비스를 해주는 도서관과 법인으로 등록된 기관이나 단체로 하며 중앙센터에서 관리한다.

#### 4.1.3 지역센터 도서관

지역센터는 최근의 상호대차의 건수와 구입잡지 수를 기초자료로 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센터를 <표 7>과 같이 선정한다.

이러한 방안은 도서관의 능력 중심적인 분할구도이라 할 수 있겠다. 분담수서나 상호대차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센터는 해당지역에 참여도서관을 통솔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lt;표 7&gt; 선정된 지역센터 일람표

지역	기관명	상호대차	구입잡지
서울A	가톨릭의대	43,034	1,103
서울B	삼성병원	28,906	1,015
서울C	연세의대	56,630	1,353
서울D	서울 울산의대	41,398	1,023
충청권	충남의대	3,622	200
경북권	계명의대	13,307	698
경남권	부산의대	12,231	656
전남권	전남의대	5,187	408

이것은 서울에 4개와 지방에 4개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과 경인지역에 의과대학과 대형병원도서관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며, 역사가 긴 도서관이 주로 서울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센터의 역할은 지역센터내의 조직을 관리한다. 지역센터내의 회원관리, 개인회원의 관리, 지역센터내의 1차 상호대차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지역센터내의 분담수서를 위한 조정기구의 역할, 중앙센터와의 교류, 지역센터내의 교육, 지역내 회원에 대한 지원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이다.

지역센터 내에도 분담수서와 상호대차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지역센터별로 구축된 관할 구역은 분담수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역센터를 1차 상호대차를 신청기관으로 정하고 2차로 전국권역으로 확대한다면 지역간의 균형적 정보활용도 가능하고, 분담수서에도 자원의 균형적 배분이 되리라 생각된다.

개인회원은 개업의, 의학관련 종사자나 의학정보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개인으로 하며 지역센터에서 관리한다. 또한 의학분야가 아닌 도서관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센터에서 관리한다. 현재 한의도협에서는 상호대차에 개인회원 신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요즘정산의 중앙화하고 개인의 정보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인회원제도를 두고,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필요시 문헌을 받아 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기관에서 관리한다.

## 4.2 학술잡지 분담수서

### 4.2.1 추진 체계

국내의 외국잡지의 중복 구독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만 중복을 최대도로 줄일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네트워크의 체계로 전국을 8개 지역으로 나누고 1차로 8개지역내에서 분담수서를 실시하여 지역 내에서의 중복을 먼저 줄이고, 2차로 8개 지역 센터간에 분담수서를 한다면 전국적인 중복을 최대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학술잡지 분담수서를 위하여서는 대규모도서관을 중심으로 분담수서를 리드할 지역 대표도서관을 정하고, 대표도서관 중심체제로 분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8개 지역센터별 분담수서의 추진은 지역센터의 분담수서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4.2.2. 실행 방법

분담수서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분담하여 구독하기로 정한 잡지는 입수되는 즉시 참가관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주고, 상호대차는 철저한 원가주의로 제공하여야 하며, 문헌복사는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용자나 사서 모두 자관에 소장되어 있는 잡지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협력기관간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의학잡지의 분담수서로 구독하는 잡지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학술잡지 분담수서 종수 배분, 학술잡지의 이용상황 파악, 핵심잡지의 선정, 매년 분담잡지명의 편성, 상호대차 현황 분석, 분담수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의 모색, 이용자의 요구파악 등이 될 것이다.

분담수서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완벽한 지원, 신속하고 편리한 상호대차서비스체제의 가동, 돈독한 협력체제의 구성, 데이터베이스의 공동구축으로 인한 표준화 작업등이 분담수서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분담수서의 목표는 최소한 MEDLINE에 등재되는 4,300종을 국내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국내에서 구독하고 있는 1,829종 이외에 2,500종을 추가로 구독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 의학잡지는 국내에 완전한 한 세트를 구비하는 것이 해외에 문헌복사를 의뢰하는 건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봉사될 수 있다.

1차 분담수서는 지역센터에서 잡지구독가격이 \$1,000 이하인 잡지를 먼저 분담수서를 실시한다. 지역센터 내에 자관의 구독예정인 최소한의 필요한 핵심저널을 정한다. 핵심잡지는 기관이나 국가나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참가기관의 핵심잡지목록은 자체의견

을 존중하되 중수를 제한하도록 한다.

최소한의 핵심잡지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잡지명을 목록을 만든 후 분담목록 위원회에서 로컬의 목록을 모두 대조한 후 기관간의 구독희망목록이 타관 구독예정인 핵심목록에 있는지 확인한 후 어느 기관에도 구독하지 않고 있는 잡지명을 참가기관간에 목록분배작업을 하여 구독하기로 정한다. 여기에서도 구독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잡지는 지역센터가 목록을 작성하여 중앙센터 분담수서 위원회에 이송한다. 분담수서를하기로 선정된 잡지목록은 참여하는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중시하여 분담수서 목록을 배분한다. 조정이 안될 경우는 대구·경북지역 대학간의 분담수서의 경우와 같이 무작위로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sup>25)</sup>

전국적인 분담수서 대상잡지는 구독가격이 \$1,000이상인 잡지를 대상으로 분담수서를 실시한다. 현재 전국 의학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외국학술잡지 1,829종중 \$1,000이상인 잡지가 426종으로 MEDLINE에 등재되는 4,300종을 구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중수가 될 것이다.

2차로 중앙센터에 넘겨진 목록은 각 지역센터에서 모아진 목록을 수합하여 목록을 작성한 후 타 지역센터의 구독예정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중복체크를 한 후 어느 기관에도 포함되지 않은 목록을 8개 지역센터가 나누어 분담수서를 한다. 국내에 소장하는 목록은 최소 2부를 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느 지역센터에서도 구독하기 어려운 잡지는 중앙센터에서 구독을 하도록 하여 완벽한 1질을 국내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분담수서로 구독하는 잡지는 중앙센터에서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여 분담수서에 참여한 기관에게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신속성이 있는 서비스 체제(종합목록의 구축, 소장사항의 기록, 상호대차서비스의 우선권 등)를 구축한다.

분담수서의 문제점은 자관주의와 재평가와 조정노력의 부담이다. 대부분의 잡지가 Impact Factor가 높은 잡지명은 이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관에 소장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분담수서를 하기 위한 작업과정으로 잡지명을 분배하고, 재평가를 위한 조정작업 등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분담수서계획은 상황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도 중앙센터가 관여하여 조정작업을 할 필요가 있고, 분담수서를 주도하는 지역센터에 재정적인 지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선 지역센터별로 분담수서 추진현황의 평가를 거쳐 평가결과 분담수서를 철저히 하는 센터의 순위를 결정하여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어 경쟁을 유발시킨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4.2.3 전자잡지의 분담수서

25) 김진균,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상호협력을 통한 업무 효율화 추진사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ric.ac.kr/int\\_search/ksearch\\_fm.html](http://www.kric.ac.kr/int_search/ksearch_fm.html)



전자잡지는 상호대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핵심잡지는 중앙센터에서 국가 라이선스로 구독하여 참가도서관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이트 라이선스로 구독하든지, 잡지 한 아티클을 다운받을 때마다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한다.

국가 라이선스로 구독하여 회원도서관이 이중으로 구독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예산으로 분담수서를 실시한다면 더욱 효과적이 될 것이다. 중앙센터에서 전자잡지를 구독하면 MEDLIS에서 직접 원문을 쉽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잡지는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구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sup>26)</sup>

### 4.3 학술잡지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 4.3.1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학술잡지의 종합목록 DB의 구축은 참여기관이 자관의 소장사항을 입력하므로 이루어지게 한다. 구축방법은 참가기관의 등록된 종합목록 담당자의 책임 하에 입력한다. DB 구성은 학술잡지의 서지사항을 수록한 서지DB, 서지DB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참조서지DB, 학술잡지의 권·호에 따른 소장기관을 표시하는 소장정보DB, 검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거DB, 전거 DB구축하는데 필요한 전거참조DB로 구성한다. 이외에 잡지 약어명 DB, MeSH용어 DB 등으로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높인다.

신규서지와 신착호의 추기는 수시로 입력하되 신착호의 추기는 입수 즉시 하도록 한다. 약어파일, MeSH File 등 참조파일 DB는 센터에서 구축한다

#### 4.3.2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학술잡지의 데이터베이스는 회원도서관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다. 마스터DB를 활용하면, 자관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로컬에서 올린 신규 DB는 센터에서 교열 후 마스터DB에 업로드 한다. 소장사항 DB는 중앙센터의 목록담당자가 수시로 수정을 하고, 목록의 구축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목록 분과위원회를 두어 정책적인 결정을 하여 유지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수정은 잘못이 발견되는 즉시 수정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이러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서도 한국의 의학정보센터의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센터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센터는 참가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담요원은 참가도서관이 소장사항을 적기

26) 佐藤義則, “大學環境における電子ジャーナルの役割”, 《日本 醫學圖書館》第45卷, 第4号(1998), pp. 426-433.

에 추가하는지 항상 체크하고, 추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독촉을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강구하여야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품질도 좋아진다. 소장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상호대차에서 반송율도 줄일 수 있다.

참여기관 관리자들의 목록작성 기술수준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DB구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정기교육은 연 2회 센터에서 실시하고, 수시 교육은 지역센터의 목록담당자가 전화, E-Mail, 질문 및 답변의 코너를 이용하여 수시로 교육시킨다.

#### 4.4 상호대차제도의 개선

앞의 연구결과 상호대차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문헌신청을 분산화 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체계를 발전시켜야만 한층 더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정보센터가 인터넷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고 상호대차를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은 세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서비스는 자국에 국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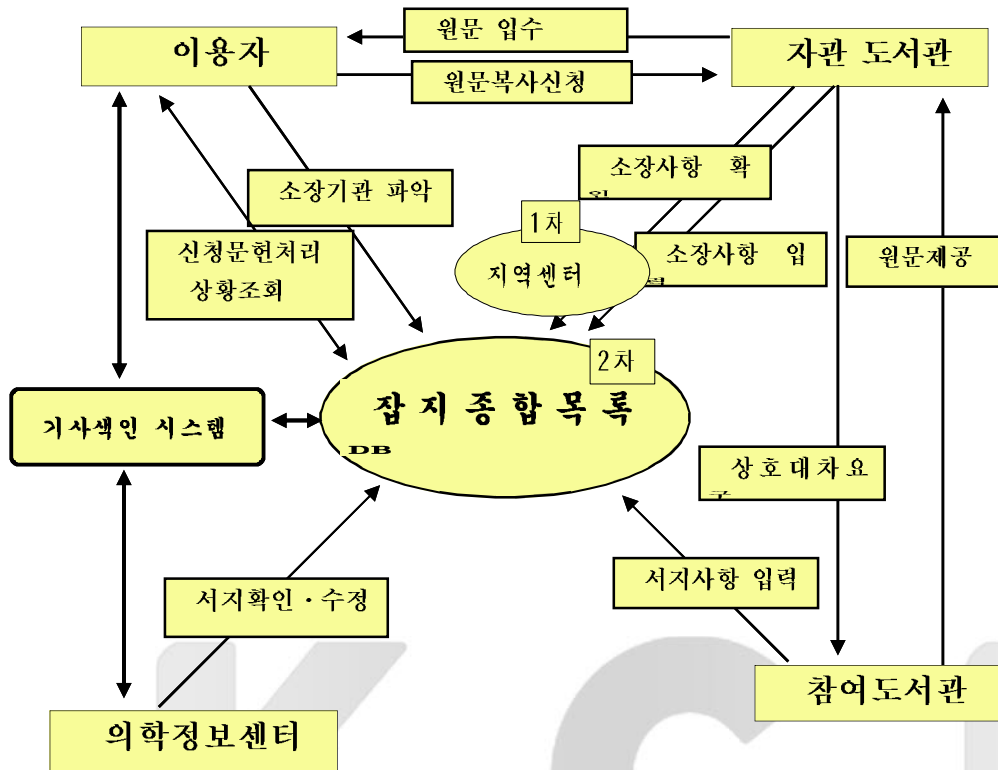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면 요금에 대한 불만도 해소되리라 생각된다. 의학연구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던지 원문을 입수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상호대차의 서비스 체계는 과거에 우편에서 FAX로, Ariel로 이제는 이용자에게 직접 전자우편으로 원문을 전송하고 있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이용자 중심체제로 서비스방법의 편리성을 고안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편리성과 경제성을 감안한 이미지전송 체제로 가야 할 것이다.

상호대차의 처리기간이 길다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처리시스템인 MEDLIS의 성능향상과 처리방법의 개선(복사나 우편, FAX의 방법보다도 개선된 Ariel 시스템에 의한 이미지파일 전송으로 참여기관이 모두 운영한다면 향상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에 Ariel 시스템을 구비한 기관은 30개 기관이나 시스템을 구비한 모든 도서관에서 Ariel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호혜의 원칙으로 모든 기관이 상호대차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Ariel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센터의 설립으로 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면 Ariel시스템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회원도서관에 배포하여 준다면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해도 협조가 잘 될 것이다. MEDLIS를 검색해 보고 국내에 없는 잡지는 한국메들라스센터의 DOCLINE으로 연결되어 문헌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결과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편리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상호대차 집중화 현상은 회원도서관 전체에게 알려 분산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2>과 같이 1차 지역센터에서 상호대차를 처리하고, 지역센터 내에 소

장되지 않은 자료만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 2> 상호대차시스템의 흐름도

빠르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참여기관이 반드시 해 주도록 하는 의무조항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대차의 견제와 통제를 하는 처리규정과 지연처리에 대한 제재조치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FAX나 Ariel과 같은 시간의 긴급을 요하는 것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우편은 최소 1주일 이내로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

상호대차의 요금체계는 참여도서관이 당사자간 정산체제에서 중앙정산제로 센터에서 일괄 정산한다. 상호대차를 실시한 기관 당사자간에 요금 정산하는 방법은 매월말 정산에 따르는 사무처리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회원도서관에 소속된 이용자 이외에도 개업의 등과 같은 개인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다.

## 4.5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한 MEDLIS 시스템개선

### 4.5.1 하드웨어 환경 개선

첫째로, 네트워크속도에 대하여서는 전용회선의 트래픽이 많아서 회선을 통하는 시간 때문에 늦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네트워크 전용회선을 별도로 설치해야 네트워크 부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장의 의학사서가 MEDLIS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루트는 교육망을 통하여 서울대 망속에 MEDLIS와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여러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네트워크속도가 늦다.

둘째로, 주전산기의 처리용량과 성능에 따라서 처리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의학잡지 공동이용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주전산기의 환경은 서버의 규모가 작아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빠른 시간에 처리결과를 나타내 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서버의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 전국의 이용자와 사서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대형 시스템으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다.

### 4.5.2 소프트웨어의 보완

MEDLIS는 서울대 자체의 많은 예산으로 개발하여 1년 동안 운영한 결과는 설문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사용자가 만족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기능의 보완 및 추가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사용자가 외면할 것이다.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의학사서에게 편리한 업무를 제공하여야만 잡지 공동이용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다.

MEDLIS는 전국 의학도서관과 의학관련 연구자들 모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국가예산으로 유지·관리되어야만 한다. 서울대 자체예산이 아닌 국가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만 적기에 즉시 보완해 줄 수 있다. 한의도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MEDLIS는 한의도협 예산지원 없이 서울대 자체예산으로 운영되다 보니 서울대 자체도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에 전국적인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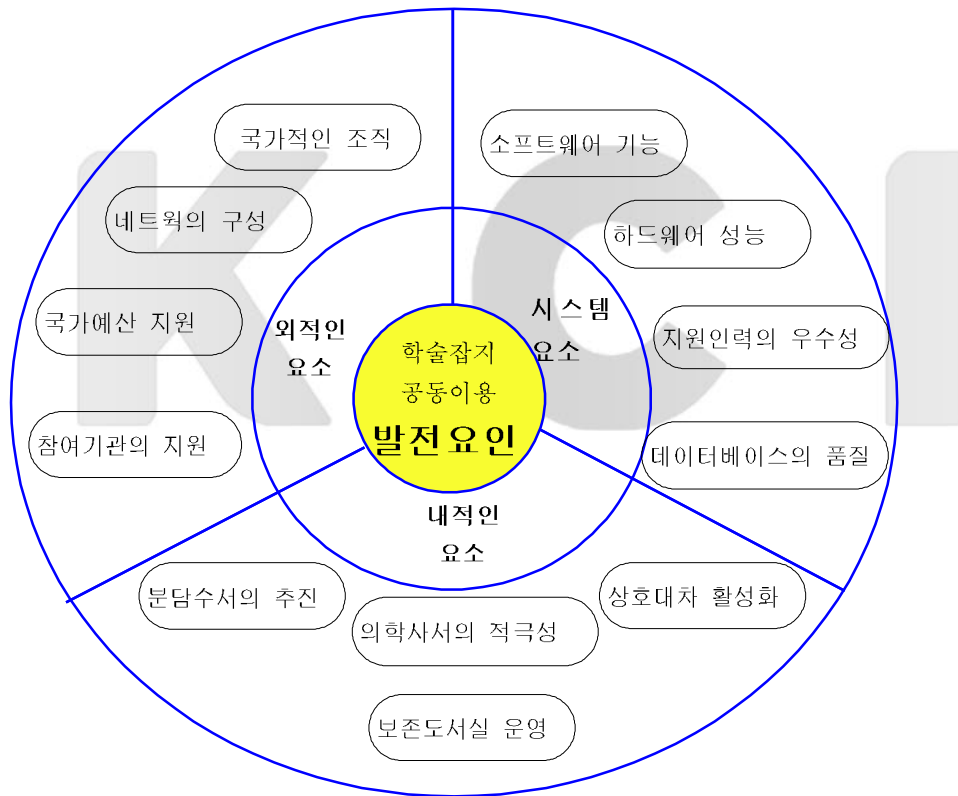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기능변경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만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 이용자의 요구는 참여도서관의 서로 다른 환경에 맞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전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요구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서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협의회를 통하여

기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만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

#### 4.5.3 이용자 참고질의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리자에게 문의하거나 이용자간의 의사전달 창구를 다양하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사용자와 관리자의 의사전달 창구인 게시판(질문 및 답변)과 E-Mail의 요구에는 즉각 회답되어야 한다. 회원도서관이나 이용자에 대한 참고질의 서비스를 위한 운영조직으로 센터의 요원과, 지역센터에 질의응답자를 두어 공동으로 응답한다면 이용자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인 질문은 운영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한다. 질의응답 처리시기는 E-Mail이나 게시판을 즉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만이 없도록 한다. 설문지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이용자는 빠르고 친절하게 회답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밝힌 학술잡지 공동이용의 촉진요소를 관련 요인별로 고찰해 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학술잡지 공동이용의 발전 요인 관련 요소

## 4.6 공동이용의 장애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공동이용의 개선방안에도 이면적으로는 장애요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여 공동이용의 촉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기술한다.

### 4.6.1 저작권법의 제약

2000년 1월 개정된 저작권법은 도서관에서 학술잡지를 이용시키는데 많은 제약을 주고 있고, 또한 시행령도 급히 제정되다 보니 현실성이 없는 법률이 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하여 오던 현재의 상호대차제도도 여기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다.

### 4.6.2 전자잡지의 출현

전자잡지의 출현으로 인하여 자관에서 이용하는 학술잡지의 이용은 편리해졌으나 상호이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학술잡지의 최신성은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술잡지가 전자잡지로 동시에 출판되고 있어 신속성과 편리성 때문에 인기가 있다.

전자잡지는 이용이 편리하고, 변형이 쉽고, DB 전송이 자유롭고 쉬워짐에 따라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 저작권법의 제약이 있어 이용시키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

전자잡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호대차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DB회사들이 전자잡지는 도서관에서 구독하더라도 사이트 내에서만 이용시키라는 조건을 달기 때문에 인쇄물잡지로 구독하지 않고 전자잡지로만 구독한다면 학술잡지 공동이용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남게 된다.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자관의 이용자편의를 위해서 전자잡지로 많이 구독한다면 상호대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이용의 제약이 되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전자잡지를 종이로 인쇄하여 상호대차를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출판사와 협상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 4.6.3 할거주의(Sectionalism)

공동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은 자관 중심주의인 할거주의는 분담수서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상호대차의 서비스 기간의 지연 종합목록의 자관 소장사항 추기 등 사서들의 의식문제가 공동이용에 내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할거주의는 조직이 대규모화됨으로써 조직구성원은 소속한 조직단위나 기관에만 관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다른 기관이나 조직단위와의 협조

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직자체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획직한 조정을 곤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 5. 결론 및 제언

의학잡지는 의학도서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정보자료이다. 인쇄물잡지에서 전자잡지로 서비스의 방법이 전환되면서 최신휘의 잡지는 이용자가 직접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연구실에서 직접 원문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의학도서관이 당면한 외국 학술잡지 구입예산의 절약과 국내에서 보유할 수 있는 외국학술잡지 종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동이용 방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된 기관의 중복수서 현황을 조사하였고, 상호대차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문헌적 고찰로 연구방안을 수립하였고, 의학연구자와 의학사서에 대해 현재 의학도서관간에 실시되고 있는 공동이용의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설문조사·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결과 분담수서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며, 의학사서도 공감하는 부분으로 협동식 고취와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수서를 한다면 각 기관이 잡지구입비를 절감하는 대신에 더 많은 외국잡지를 구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서는 상호대차시스템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하고, 더욱 편리하고 강화된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 의학정보센터를 설립해서 의학정보에 대한 Master DB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의학도서관간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현재의 MEDLIS 보다 더욱 발전된 공동이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제안된 개선방안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잡지 공동이용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전국 의학도서관을 계층형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국가기관으로 중앙에 의학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중앙센터 산하에 8개 지역에 대표도서관을 지역센터로 둔다. 지역센터에 개인회원제도를 두어 개업의 등 일반이용자가 문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단위도서관은 중앙센터에서 기관회원으로 관리한다.

둘째, 상호대차 요구의 특정도서관으로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 신청제도를 실시한다. 단위도서관은 1차로 해당지역 내에서 상호대차를 하고, 해당지역내에 소장자료에 한하여 2차로 전국 의학도서관에 요청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셋째, 외국의 학술잡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중복수서를 막을 수 있는 분담수서를

실시한다. 분담수서는 1차로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분담수서를 하고, 2차로 8개 지역센터간에 분담수서를 하여 전국적인 분담수서 조정체제를 마련하며, 이용자가 자료를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하여 해외에의 문헌의존도를 줄인다. MEDLINE 수록 대상잡지인 4,300종을 국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넷째, 학술잡지 종합목록은 전국이 통합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표준화를 기하고, 신속적인 운영으로 상호대차의 오류를 줄이고, 분담목록으로 자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인력을 절감한다.

다섯째, 국가적인 의학정보센터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시스템 개발비용, 시스템 운영비 및 지역센터 지원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 받는 체제를 정립하여, 의학도서관에 지원될 수 있는 체제를 조성한다.

여섯째, 의학문헌 이용자가 한 곳에서 의학관련 모든 정보를 탐색에서 획득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의학문헌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의학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러한 연구는 현행 상호대차의 관장기관인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재정상으로는 정보센터의 운영이 어려울 것임으로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내에 한국메들라스센터와 한국 교육학술정보원(구 첨단학술정보센터)에서 지정 받은 의학전문정보센터의 기능을 포함하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예산으로 운영되어야만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은 각주로 대체함>